

나주에 전기차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환경부, 전남도·나주시와 협약 2027년 나주 혁신산단 내 개원 배터리 제조·재활용 전주기 관리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 첫 단추”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기차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환경정보센터가 나주에 들어선다. 환경부는 전남도, 나주시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자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

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생산, 생산량, 판매처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는 전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차관보 장관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면서 계속 문씨는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영계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등 올해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결국 내년에도 차등 적용 도입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는 “가게 운영조차 어려운 영세 상인들도 차등 적용 없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버리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다. 경기불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이제는 10년 넘게 운영해 온 가게를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는 “영세 기업·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매출도 올라야 하는데 경기침체와 고물가 탓에 매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임금이 오를 때마다 직원 근무 시간 단축과 해고를 고민하는 것이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번 인상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 폭보다 적은 1.7%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됐다. 최저임금 기준 올해 월급 206만740원에서 내년 209만6270원이 되면 한 달 3만5530원이 오르는 꼴이다. 3만5000원으로는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도 최대한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비를 줄이고 저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아주 먼 이야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윤모(22)씨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히 좋지만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 자체를 하지 않고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를 자주 봐서 걱정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더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영세 기업이나 상인들에게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라는 상황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와 고용 위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을까 걱정이 된다. 경기침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광주 시민 등이 지난 12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에서 의류와 공예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극한 호우...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가동”

김 지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 생활화”

전남도가 최근 전북과 충남 등에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보는 등 예측하기 힘든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도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12일 김재철 전남도의원,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위원장, 보성군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과 함

께 보성 검백면 상덕마을을 찾아 계곡부의 추가 침식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리 상태,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보성 상덕마을은 지난 5월 집중호우(강우량 179mm) 시 8가구 12명이 선제적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은 마을이다. 지난 3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 점검 결과 마을 주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기 전 소규모 사방사업을 완료했다.

김영록 지사는 “계속되는 강우로 연약

지반이 발생하고,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 대비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 대피 요청 시 적극적으로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형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 대상·시기 등을 결정하고 일몰 전에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경찰·소방, 마을이장·청년회 등이 대피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오지현 기자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주식회사 양우건설 공고 제2024-07-01호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07월 1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710,000,000원 중 금310,000,000원정을 감소하여 금400,000,000원으로 하고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31,000주에 대하여 각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자 비율만큼 액면가로 유상소각하여 총발행주식 71,000주를 4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이는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함.

2024년 07월 15일

제출처
상 호 : 주식회사 양우건설 (☎061-642-9882)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28-1 (봉산동)
대표자 : 황미순

광고문의

팩스 (062) 519-0709
전화 (062) 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